■ 탄골류

부지화(不知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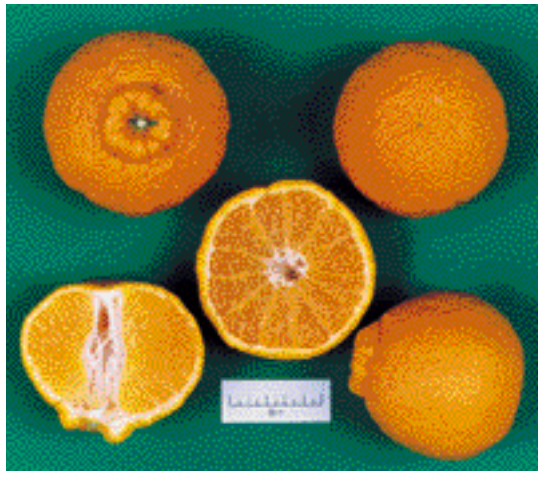
▲ 부지화

1. 육성경위

부지화(不知火)는 일본 농림성과수시험장 감귤부에서 1972년에 청견(淸見)과 중야3호(中野3號) 폰깡을 교배하여 육성한 교잡종이다. 제주도에서는 1990년경부터 도입되어 재배되고 있으며 한라봉이란 이름으로도 불려지기도 하는데 고당도로 품질이 우수하여 점차 재배면적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2. 주요특성

나무 수세는 탱자대목에 접목했을시는 약간 약하며 온주밀감, 하귤을 중간대목으로 하여 고접했을시는 약~중간 정도이다. 나무모습은 어렸을 때는 약간 직립성이 나타나지만 열매가 맺기 시작하면 벌어지면서 자란다. 가지와 순은 밀생하며 가늘고 짧다. 가시는 수세가 안정되면 없어지고 잎은 약간 작아 폰깡과 같은 정도이다. 잎은 두껍고 잎날개(익엽(翼葉))가 비교



▲ 부지화의 과실

적 큰편이며 수체의 내한성은 청견과 같은 정도이다. 궤양병, 더뎅이병(창가병)에는 양친(兩親)과 마찬가지로 강하다.

꽃은 대부분이 단성(單性)이지만 총상화서도 있다. 꽃의 크기는 청견, 폰깡보다 크고 화분(꽃가루)을 형성하지만 화분량은 적으며 기형화도 많이 발생한다. 씨가 없는 과실(무핵과) 비율이 상당히 높고 씨가 있는 과실(유핵과)일지라도 종자수가 극히 적으며 단위결과성이 강하다.

과실 과실은 200~300g으로 만다린타입으로서는 대과에 속한다. 과실모양은 도란형(倒卵形)~편구형(扁球形)으로 과형지수는 100~120 정도이다. 과실모양과 크기에는 고르지 않은게 많고 과실균일도가 불량하다. 또한 과경부에 병귤처럼 꼭지부분이 튀어나온 것에서부터 전혀 튀어나오지 않고 편평한것까지 있다. 그리고 열매꼭지가 튀어나오지 않은 편평한 과실에는 배꼽이 발생되는 것이 많다.

과피는 주황색으로 착색 개시기는 10월 중순이며 완전착색 시기는 12월 상순경이다. 과피의 두께는 3.5~5mm로 대과임에 비해 얇은 편이다. 성숙과의 과피는 약간 거칠지만 박피(껍질벗기기)는 용이하다. 폰깡향이 있고 부피는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과육의 색깔은 담황색으로 육질은 유연다즙하며 속껍질(양낭피)은 극히 얇고 연하다. 과즙의 당도는 13~14 ℃Bx 정도이나 장소에 따라 16 ℃Bx 이상 되는 경우도 있으며 고당도계이다. 산함량은 완숙기에 1% 정도로 되며 성숙기는 2~3월이다.

3. 재배상의 유의점

과실의 내한성이 온주밀감보다 약하기 때문에 성숙기인 겨울철이 따뜻하여 연평균 기온이 16.5℃ 이상, 수확기까지의 최저기온이 -3℃ 이하가 장시간 지속되지 않는 곳이 적지이다. 과피가 약하고 여름, 가을에 건조한 경우에는 과즙의 당도는 높지만 감산이 느리고 저장병해, 수부병, 호반증 발생이 많아진다. 또한 수세가 약하기 때문에 수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심경과 퇴비시용 등의 토양관리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온주밀감에 비하면 시비량을 많게 하여 질소성분으로 연간 10a당 40~60kg 정도 시용하여 충분한 양분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과실의 성숙기는 노지인 경우 2~3월경이지만 나무에 늦게까지 놔둘수록 당도가 상승하고 감산이 진행되며 게다가 속껍질(양낭피)과 육질이 부드러워져 식미가 좋아지게 된다. 그러나 해에 따라 12월경부터 과피가 연약하게 되어 과피균열이 발생하는데 거기에서 수부병 증상에 이르러 부패과가 발생한다. 그래서 1월 상·중순에 수부병이 발생하기 직전에 수확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부병 발생방지와 부지화의 특징인 열매꼭지가 튀어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우스 시설재배가 바람직하며 제주에서의 노지재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전정은 솎음전정을 중심으로 적절한 절단전정을 가미시켜 충분한 엽수와 결실층을 확보하고 결실 초년도부터 적과(열매솎기)를 철저히 시행하여 해거리 방지 및 수세강화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부지화는 동화양분이 과실쪽에 많이 배분됨으로 인해 뿌리의 활착이나 양분 축적이 충실하지 못해 해거리 현상이 심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고당도이지만 산 또한 높기 때문에 생장 및 감산 시기에 충분한 양의 물을 공급하는 것은 고품질 과실을 생산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